

제주대 사대부고의 국제고등학교로의 전환과 과제

양진진*

목 차

- I. 제주대 사대부고의 현실
- II. 서울대 사대부고, 한국외국어대 부속외고의 대응
- III. 공영형 제주국제고등학교의 설립
- IV. 왜 제주대 사대부설 국제고등학교인가?
- V. 제주대 사대부설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원칙
- VI. 끝으로

I. 제주대 사대부고의 현실

제주도교육청이 밝힌 2005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현황을 보면 평준화지역(제주 시내권) 2448명 모집에 2540명이 지원을 했으며 이 가운데 제주대 사대부고는 남녀 각각 136명을 모집했지만 남학생은 23명 지원 0.16대 1, 여학생 37명 지원 0.27대 1를 기록해 가장 낮은 지원율을 보였다.(제주도교육청, 2005)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남녀공학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때문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매년 되풀이 되면서 제주대 사대부고가 학생·학부모들이 기피하는 학교로 지목됨으로써 급기야 제주대학교의 명예와 위신까지도 동반 추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사대부고는 평준화 이전에는 명문 고등학교 가운데 하나였으며 평준화 이후라 하더라도 제주대 사대부고처럼 기피 학교로 지목된 경우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다만 교사들만 가고 싶어 하는 학교”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는 현실에서, 작금의 사대부고 문제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도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원래 부설학교란 experimental school이라고 쓰듯이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대학이나 학부 등에 부속시설 형태로 설치한 학교로써, 종합대학 또는 교육대학에 부설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이 있다. 19세기 중엽 미국이나 유럽에 설립된 사범학교의 실습학교로 설치되어 발달한 역사 때문에 현재도 교원양성 대학이나 학부의 부설학교가 그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부설학교는 교육의 실험실증적 연구와 대학의 교육실습에 협력할 임무가 있다.

미국에서는 부설학교를 여러 명칭으로 부르는데, 흔히 대학의 부속시설이라는 의미로 university school, 연구를 위한 학교라는 의미로 laboratory school, 실습을 위한 학교라는 의미로 demonstration school이라 한다. 과거에는 부설학교의 학생은 우수한 능력과 좋은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연구나 실습에 있어서 일반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부설학교는 대학에 부속되어 있다는 특수성과 우수 교사가 선임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권적 학교로 지목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현재 제주대 사대부고가 과연 제주대 사범교육의 실험실증적 연구와 사범대학의 교육실습을 위한 실습학교인지 그리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제주대 사대부고는 1학기 한달동안 30~40여명 4학년 학생들의 교생실습을 위한 배려 이외에는 제주대 사대와 연구·실험을 위한 어떠한 협력적 관계도 형성하고 있지 못한데다가 기껏해야 일반인들에게는 도시지역 인문계고교 가운데 하나로 그것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고교 정도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며, 한때 전국사대학장회의에서는 사대부고 교장에 사대교수들이 임명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 적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필자는 제주대 사대부고를 특수목적형 자율학교인 사대부설 국제고등학교로 전환할 것을 제안해보고 싶다. 이러한 제안에는 제주대 사대부고를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도 있지만, 더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제화된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제주대학교의 역량을 최대한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고등학교 체제를 만들어보자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

II. 서울대 사대부고, 한국외국어대 부속외고의 대응

제주대 사대부고의 특수목적형 자율학교인 국제고등학교로의 전환하자는 안은 서울대 사대부고와 한국외국어대 부속외고의 특화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안된 아이디어이다. 서울대 사대부고와 한국외국어대 부속외고는 대학의 부설 또는 부속학교로써 시대적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얼핏 보기에 서울대 사대부고는 국립이고 한국외국어대 부속외고는 사립인데다 사범대학 부설학교도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성격의 학교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학교가 공히 대학교의 부설 또는 부속학교이며 궁극적으로 해당 대학교의 여러 가지 역량과 연계하고 활용하기 위한 특수목적형 자율학교 체제를 지향한

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서울대 사대부고의 대응

국립대부설학교의 자율학교 전환과 관련된 현실에서 최근 서울대의 움직임은 시사가 매우 크다. 서울대는 사대부설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2007년 서울대 인근 지역으로 옮김으로써 연구·실험학교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대는 서울 성북구 종암동 소재 부설중과 동승동 부설여중을 통합해 2007년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 후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서울대학교, 2005)

서울대와 교육부는 교정 이전 계획에 대해 협의를 마쳤으며,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부지 매입 및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녀 공학 형태로 통합되는 부설중은 24개 학급 규모로 운영토록 교육부로부터 원칙적인 승인을 얻었으나 서울대의 학급 확대 재량권을 활용해 36개 학급으로 편성, 연구·실험학교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했다.

여기서 서울대가 말하는 연구·실험학교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 서울대 측은 특수목적고에 진학할 정도의 우수학생과 일반 수준의 학생, 수업부진 학생 모두 입학대상으로 받아들여 독자시스템으로 교육하는 일종의 자율학교라고 설명했다. 독자시스템으로 교육하는 일종의 자율학교란 기본적으로 과학교와 외국어고와는 다른 형태의 특목고를 뜻한다. 여기서 우리는 서울대 사대부고가 사범대학의 연구·실험이라는 특수목적에 추구하는 특수목적형 자율학교를 지향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학교는 또 종암동 소재 사대부고를 사대부중과 함께 낙성대 인근 지역으로 옮겨 사대부고 본연의 연구·실험학교로 운영하고, 부설초등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서울대 부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부설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어 서울사대의 연구 성과를 학교 현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교정이 옮겨지면 30년 만에 명실상부한 부설학교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낙관했다.

여기서 보듯이 서울대는 사대부고를 연구·실험학교 특징을 대폭 강화한 특수목적형 자율학교 체제로 운영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그것은 서울사대의 연구 성과를 학교 현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부설학교로 자리 잡기 위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11개의 우리나라 국립대부설학교들이 가능하다면 지역의 여건에 비추어 서울대의 예처럼 연구·실험학교로써 특수목적형 자율학교 체제를 갖추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외국어대 부속외고의 대응

그런가하면 서울대 사대부고와 달리 한국외국어대 부속외고(용인외고)의 경우는 특수목적형 자율학교의 또 다른 선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05년 3월 개교한 용인외고는 용인시가 한국외대와 협약을 체결, 사업비 2백70억원 전액을 투자한 전국 최초의 관·학 협력의 특목고다. 첫 신입생 입학 경쟁률이 9.6대 1로 전국 최고로 전체 합격자의 토폴 평균성적이 300

점 만점에 264.7점에 이르고 있다.(용인외고, 2005)

이 학교는 외국어 교육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진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직접 운영을 맡고 있으며 우수한 인재를 교육할 수 있는 유·무형 여건도 풍부해 세계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로 끌어올리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다. 용인외고의 교육이념은 '외국어 영재 교육을 통한 세계경영 인재양성'이다. 따라서 영어와 제2외국어 1개 이상을 반드시 습득하게 하는 'E+1(English +one)'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학교가 학부모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 모두가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기숙사에는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할 수 있는 외대 대학원생들이 사감을 맡아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영어토론을 돕는다. 국제 계열 학생들은 입학 때부터 해외대학으로의 진학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들 해외 진학반의 경우 150여개의 해외대학이 대상이다.

관·학 협력의 특목고 유사사례로 의왕시의 명지외고와 동두천시의 동두천외고가 있으나 해당 지자체가 이들 학교의 유치를 위해 증축과 신축에 각종 예산을 지원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지원인데 반해 용인외고의 경우는 용인시가 지역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용인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용인외고의 설립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곧 의왕시와 동두천시는 후원자의 지위라면 용인시는 공동 설립자의 자격을 가짐으로써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효율적인 연계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용인외고는 학교종별로 볼 때 분명 특목고이다. 교육부는 외국어고, 과학고 등의 특목고는 이미 자율학교 수준의 교과편성권과 학생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율학교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 모든 특모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은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교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영재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제나 수업연한 등의 특례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사립의 경우는 현행 학급당 교사수를 늘리도록 하고, 학생 선발의 경우 시기나 방식에서 학교 나름의 재량권을 확대하며 학생들의 특수한 재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동일계 진학 방식의 확대 적용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용인외고는 앞으로 현재의 자율학교보다도 자율성이 더 강화된 학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용인외고의 성공은 한국외국어대학교라는 절대적인 역량이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3. 제주대 사대부고의 선택

서울대 사대부고와 한국외국어대 부속외고의 예에서 보듯이 제주대 사대부고도 나름의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현행법상 인문계고등학교의 특목고 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립대부설학교의 경우는 시·도교육청이 명문고 부활, 입시교육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자율학교로의 전환을 권장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사대부고도 특목고를 추진하는 현실에서 제주대의 경우는 제주도가 처한 내외의 사정으로 고려해볼 때 특화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제주대가 직접 나서서 사대부고를 특수목적형 자율학교로써 국제고등학교로 전환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Ⅲ. 공영형 제주국제고등학교의 설립

그런데 2005년 7월 29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제주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화된 전문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도교육청의 건의에 대해 제주도에 공영형 자율학교인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할 전망이며 연내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라일보, 2005)

공영형 자율학교란 학교 설립은 국가와 지자체가 하고 학부모, 시민단체, 종교단체, 기업체 등 지역인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써 이미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수도권과 충남 대전을 제외한 11개 광역자치단체에 들어서게 될 혁신도시에 이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재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국가가 함께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현재 유일한 국제고등학교로써 부산국제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라는 특수목적1) 특수목적고등학교인 동시에 학교운영의 자율화 지정을 받은 특수목적형 자율학교이다. 공영형 자율학교로 제주국제고등학교가 설립이 되면 전국적으로 국제고등학교는 서울시 종로구에 신설 예정인 학교를 포함하여 3개교가 되는데 모두가 특수목적형 자율학교가 될 것이 확실하다.

더욱이 교육부가 얘기하는 공영형 자율학교는 설립과 운영을 분리해 기존 자율학교나 자립형 사립고보다 자율권이 더욱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이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교장·교사 선발 또는 초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학생 선발권이나 등록금 책정에서도 상당부분 자율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제주도에 공영형 자율학교로써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특수목적형 자율학교로써 별도의 국제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설립 재원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별도의 국제고등학교는 운영 면에서 자칫하다가는 부산국제고등학교처럼 현행 외국어고와 차별화되지 않아 이름만 국제고라는 지적을 받을 우려가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2005년 6월13일 종로구에 국제고를 신설하는 내용의 “특수목적고 설립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통상, 외교 등 분야의 국제전문가를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외국어고와 차별성이 없어 벌써부터 이름만 ‘국제고’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적이든 그렇지 못하든 별도의 국제고 설립은 작금의 제주대 사대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제주대 사대부고를 국제고등학교로 전환을 하게 되면 설립 재원도 최소화할 수 있을

1) 특수목적고 추구하는 이른바 특수목적형 고등학교는 크게 ① 특수목적고등학교, ② 특성화고등학교, ③ 자율학교, ④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을 정확히 구분해본다면 특수목적형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수목적형 자율학교, 특수목적형 자립형사립고등학교라고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운영 면에서 한국의국어대학교의 역량과 연계한 부속외국어고등학교(용인외고)의 성공적인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주대학교의 역량을 다면적으로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고등학교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제화된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점이 크다. 그리고 현재의 제주대 사대부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IV. 왜 제주대 사대부설 국제고등학교인가?

1. 특수목적형 자율학교의 필요성

제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국제고등학교는 단순한 특수목적형 특수목적고등학교이기 보다는 공영형 자율학교와 같은 특수목적형 자율학교가 되어야 한다.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학교는 공히 특수목적을 추구하는 특수목적형 고등학교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자율성 정도에서는 매우 다르다. 알기 쉽게 간단히 그 정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특수목적형 고등학교의 자율성 정도

유 형	학생 선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 임용권	납입금 책정	기 타
특수목적 고등학교	○	○	×	△ (예고, 외고만 자율)	
자율학교	○	○	○ (교장임용 자율)	△ (교육부장관 지정받은 학교)	법령상 교감자격, 학기제, 학년제, 수업연한 등도 자율

제주대 사대부고를 특수목적형 자율학교인 국제고등학교로 전환하자는 제안은 다른 아닌 국립대학부설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자는 그동안에 있었던 논의의 연장선에서 나온 내용이다. 2003년 7월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율학교운영지침을 입법예고하면서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해 자율학교 지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기고 특성화고, 예·체능고, 인문·실업 통합고 등에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자율학교를 국립대부설학교, 특수목적고, 농어촌고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교육부는 외국어고, 과학고 등의 특목고는 이미 자율학교 수준의 교과편성권과 학생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율학교를 신청하지 않겠지만, 전국 19개 국립대부설학교는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명문고 육성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바람과 맞물려, 시·도교육감들은 해당 부설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러한 예측은 빛나가 외국어고나 과학고 같은 특목고 가운데서도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경우도 생겨났는가하면, 국립대부설학교는 한 학교도 자율학교로 지정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우선 시·도교육감들이 도시지역 인문계고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면 고교평준화의 틀이 깨질 수 있다고 반대함에 따라 도시지역 인문계고교는 자율학교 신청대상에서 제외했던 이유에서 국립대부설학교 역시 도시지역 인문계고교의 하나라는 판단 아래 자율학교 지정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일반 인문계고교는 제외하고 국립대부설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자(이종태, 2001)는 논의는 일찍부터 있었으며 자율학교 지정대상을 실업계고, 국립대부설학교, 과학고, 외국어고로 우선 확대되어야 한다(한유경, 2002)는 주장도 있었다. 국립대부설학교는 그 설립 취지에 비추어 여타의 인문계고교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암묵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자율학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지만 현재와 같은 입시제도 하에서는 입시명문을 키우는 일이라는 비판 때문에 엄격히 제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제주대 사대부고를 도시지역 인문계고교의 하나라는 판단 아래 자율학교 지정을 유보하는 한은 현재의 제주대 사대부고 문제는 해결이 어려우며 특수목적형 자율학교인 국제고등학교로 전환을 하면 상당부분 문제의 양상이 달라지리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자율학교란 무엇인가? 자율학교란 쉽게 말해 탈규제학교(regulation-free school)이다. 현행 교육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교원자격,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선발 등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어느 정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를 말한다.

자율학교 제도는 교육개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한 학교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학교는 그 동안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교육관계 법규의 획일적 적용으로 일관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자율학교는 교육개혁이 지향하는 목표가 학교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교육관계법 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최소화하여 줌으로써 자유롭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각급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종태 외, 1997)

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 교육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위학교 운영의 작은 부문까지 중앙에서 결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교육규제가 학교의 자율성 향상에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 창의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21세기 정보사회에서는 스스로 지식을 습득, 관리,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의 경직된 학교운영체제에서 벗어나 학생·학부모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율적이고 새로운 학교운영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2. 국제고 전환의 필요성

제주대 사대부고는 바라건대 실습학교로서의 특징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그 필

요는 서울대학교 사대부고의 경우처럼 특별한 변화를 전제로 할 때 그 의미가 클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제주대 사대부고가 과연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의 실습학교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으며, 설혹 교생실습이나마 적지 않은 기여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 사대부고에서만 교생실습을 하고 있기보다는 전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렇다고 제주대 사대부고가 실습학교로써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행 체제를 고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오히려 제주대학교 부설국제고등학교로 전환을 하여 제주대학교 부설 국제교육(international education) 실습학교로 특화를 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해본다. 교생실습도 영어로 가능할 수 있는 특화된 체제를 구축한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제주도가 처한 현실에서는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서울대 사대부고의 안처럼 특목고에 진학할 정도의 우수학생과 일반 수준의 학생, 수업부진 학생 모두 입학대상으로 받아들여 독자시스템으로 교육하는 자율학교로 특화시키는 것이 제주도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국어대 부속외고의 경우처럼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자율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제주도가 처한 현실에서는 사범대학의 실습이라는 특수목적의 추구하는 자율학교보다는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인 특수목적형 자율학교로써 국제고등학교로의 전환이 보다 적절하리라 필자는 판단된다.

왜냐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우선적 과제로써 국제전문 인력의 양성, 즉 국제교육과 협력을 통한 창의적 인적 자원의 전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교육체제는 급속히 개방화·국제화되고 있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를 위해 물론 제주도에 별도의 국제고등학교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수가 있을 것이며 실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제주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주도에 공영형 자율학교인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할 전망이다며 연내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설립은 국가와 지자체가 하고 운영은 학부모, 시민단체, 종교단체, 기업체 등 지역인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영형 자율학교로 별도의 제주국제고등학교를 만들게 되면 학부모, 시민단체, 종교단체, 기업체 등의 역할이 부족한 제주도 현실에서는 학교운영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도교육청이 운영을 하게 되면 부산국제고등학교가 겪는 문제를 되풀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게 된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부산국제고등학교는 공립으로 부산시 교육청의 관리와 지원을 받고 있으나, 교원인사와 졸업생 진로, 학부모의 명문대 일변도의 진학욕구, 그리고 학교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한 재정지원의 제약 등으로 학교 경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 학교는 일차적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만을 교육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기본적으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나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제안하는 국제고등학교는 외국어 교육은 물론, 지역교육, 국제이해교육, 외국인교육을 통합하는 종합적인 교육기능을 담당하되, 기존 교육법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행정기관의 규제를 최소화하여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수월성과 책무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나서기는 애초 문제가 많다. 그렇다고 역량이 부족한 학부모, 시민단체, 종교단체, 기업체 등이 나서는 것도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교육법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행정기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국제교육의 역량을 연계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주대학교가 나서야 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2005년 7월 29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제주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주대학교 고충석 총장은 제주를 정부의 구상대로 교육, 의료의 국제화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제주대학교에 “국제 언어·문화교육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이에 교육부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에 따라 제주지역을 교육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이 문제도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는데(한라일보, 2005) 이 같은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대학교의 노력과 인프라를 국제고등학교가 공유할 수 있다면 그 교육적 효과는 매우 크리라 판단된다.

성공적인 국제고등학교를 위해서는 성공적인 국제교육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도교육청이나 지역의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제주대학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대 사대부고를 국제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제적이다. 그래서 교육부가 말하는 공영형보다는 용인외고의 경우처럼 제대로 된 관학협력형 시스템에 의해 제주대학교가 자율적으로 국제고등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제화된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련하여 기존 제주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상황에서 교육 관련법이 아닌 특별법에 근거한 국제고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목고인 외국어고등학교는 영어, 불어, 독어, 일본어, 중국어와 같이 특정국가의 외국어에 능통한 어학영재를 양성하는 데 설치목적이 있는 것으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고등학교와는 교육목적이 다르다.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5조 “교육재정지원의 특례”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24조 “교육재정 특별 지원 범위”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운영되는 국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주도, 2004) 교육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연수 및 임용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이용하면 제주대학교 사범대부설 국제고등학교의 운영을 최대화 할 수 있다는 이점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화된 전문 인력은 고등학교 보다는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다. 고등학교는 전문적인 교육보다는 보통교육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능숙한 외국어 구사능력이나 국제화 마인드, 국제적인 관습과 규범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초교육을 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고등학교에서 양성한 인력이 대학의 전공학과나 국제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원에서 계속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완성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도 제주대학교와 연계된 국제고등학교가 필요한 것이다.

이 학교에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나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외국인 자녀들도 다닐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

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주도에 제대로 운영되는 국제고등학교를 설치하는 일은 매우 화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역량을 가진 제주대학교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서 국제고등학교는 일반학생, 귀국자녀,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동경도립 국제고등학교와 여러 국적을 가진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안에서 풍부한 이중 언어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Jefferson High School, Dallas International School, The Awty International school 등이 있다. (ISS, 1999)

싱가포르는 '글로벌화'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 '정부간섭 최소화' 등의 원칙 아래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국제고등학교 설립과 운영은 완전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교육의 세계화를 통해 자국 교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인재 유치와 해외 유학비 지출 절감 같은 일석삼조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 싱가포르 국제교육 기관들이 지난해 올린 산업 부가가치는 2 조원에 육박한다.

V. 제주대 사대부설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원칙

1.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국제교육의 필요성

제주대 사대부고를 국제고등학교로 전화하자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외의 경쟁력있는 수요자들을 유인함과 동시에 제주대학교의 역량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국제교육 체계를 구축해보자는 것이다. 특히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추진으로 제주도의 국제교육은 매우 화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국제교육은 국제이해교육이라는 맥락에서 UNESCO 한국 위원회에 의해 주도되어 왔지만 전체 학교로 확산되지 못하고 협동학교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됨으로써 그 활동과 이해교육은 사회, 지리, 역사 등의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입시교육 때문에 교과서에 포함된 국제이해교육 활동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면이 많다. 뿐만 아니라 국제이해교육의 목표도 설정되어있지 못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미흡하다.

교과과정 측면에서 볼 때 국제교육의 이념과 목적도 모호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단계부터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 내용이 단순 지식만을 나열하고 있으며 지역 연구의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에 관련된 내용만을 편중되게 다루고 있어 국제교육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 2000)

학교제도 역시 국제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체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고등학교 단계부터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특목고인 외국어고의 경우 입시명문고로 부상하면서 외국어 교육보다 진학 중심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소기의 성과

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외국어고는 넓은 의미의 국제인 양성을 지향하고 있지만 외국어 전문 인력양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국제 감각과 전문지식을 가진 국제전문가 및 지역 전문가 양성보다는 한정된 범위를 가진다.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현재 제주대학교와 일부 전문대학에 지역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대학원 단계에서 통역대학원 등이 설치되어 국제학과 지역학 연구 경향은 최근 들어 관심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분위기도 성숙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한편, 국제화 추세로 인해 귀국자 자녀가 많아지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현실에서 제주도 역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00년 기준으로 해외에서 체류하다 귀국한 귀국자 자녀수는 초등학생 4,010명, 중학생 1,416명, 고등학생 1,136명으로 6,562명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귀국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은 수년간의 외국 생활로 인해 문화적 충격뿐만 아니라 언어, 교육과정, 생활태도 등에 있어 큰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의 적응 교육이 필요한데도 귀국하자마다 곧바로 국내 학교로 전입되는 탓에 국내학교 생활 적응에 큰 곤란을 겪고 있다.

일부 학생은 우리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출국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당수의 학생이 언어, 생활태도, 교과 학습상의 부적응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일정기간의 적응 훈련을 마치고 일반 학교에 편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들 귀국자 자녀에 대한 적절한 수용 체제가 확립됨으로써 교육적 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들의 해외 경험을 적절히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주도에 마련된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주도에 대한 투자 유인을 위해 외국인 학교는 물론 주한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체제의 마련도 필요하다.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수용 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도모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현재의 제주도 교육제도는 다양한 측면에 걸쳐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외국어 뿐 만 아니라 국제정치, 경제, 사회 부문에서 종합적인 이해와 국제 감각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체제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성공적인 제주도 국제교육 체제 수립을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어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다. 국제화를 위한 하부구조로서 해외정보의 구득능력을 향상시키고 세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기 위해서는 외국어가 필수적인 도구이다.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외국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은 그것이 필요한 인력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지역전문가의 육성이다. 세계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력의 배양은 국제교류와 협력 뿐 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수립과 체계적 지원이 미비하여 외부세계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지역전문가가 부족하였고 체계적 지역정보자료 또한 부족하였다. 외국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편과 보완이 필요하며, 국제교류를 위한 지역전문가 양성과 지역별 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요청된다.

셋째,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인적 자원 육성이다. 국제기구 근무에 필요한 분야별 경력, 전문

지식, 외국어 구사능력 등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국제기구 진출대상 가용 인력군(pool)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의 국제 감각 고양과 이해 증진이다. 다양한 청소년 국제 활동을 통하여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세계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다양한 세계문화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국제교류의 다양화를 통해 청소년의 국제 감각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교육의 활성화는 교육인적자원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의 협력적이고도 총체적인 대응과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나아가 국제교육이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전체 사회의 관심과 인식의 제고가 요청된다.

2. 제주대학교 사대부설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원칙

성공적인 국제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대 사대부설 국제고등학교가 성공적으로 전환, 운영되어야 한다. 제주대 사대부설 국제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전문성, 포괄성, 자율성, 특수성에 두어야 한다.

첫째, 전문성(excellence and expertise) : 외국어 능력을 구비한 자를 선발하여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국내외의 국제전문 인력양성을 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우수인재를 조기부터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둘째, 포괄성(comprehensiveness) : 다국어교육을 통하여 외국어능력을 심화시키고, 국제이해교육과 기본적인 지역교육(area study)을 실시하며, 국내외 거주 외국인 자녀의 교육도 담당하는 종합적인 국제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의 외국어고나 외국인학교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점을 종합한다.

셋째, 자율성(autonomy and deregulation) : 교육과정, 교원임용, 등록금책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기존 교육법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행정기관의 규제를 최소화하여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수월성과 책무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규제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뒤 목표달성 여부만을 점검하는 자율운영학교(opt-out school) 혹은 계약학교(contract school)를 지향한다.

넷째, 특수성(particularity and characteristics) : 제주대 사대부설 국제고등학교는 일반 국제고등학교와 달리 부설학교이기 때문에 국제교육의 실험·실습학교로 특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주대 사대부설 국제고등학교는 국제교육의 실험실증적 연구와 시범대학의 국제교육 관련 실습에 협력할 임무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제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운영의 세부안은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겠으나 여기서는 다만 개괄적인 방향만을 정리해보는 것으로 만족한다.

- ① 기숙제 학교(boarding school)로써 한국어, 한국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업을 영어 혹은 해당국 언어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생선발 대상은 외국인 학생, 내국인 학생, 외국거주경험 내국인 학생을 모두 포함하되, 내국인 학생의 허용 범위, 외국거주 내국인 학생의 입학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③ 교사당 학생수는 10명 이내로 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골고루 배치하되, 외국인의 비율을 20%이상, 최대 50%까지로 한다.
- ④ 교원은 국내 혹은 외국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선발하되 국내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기본으로 하고, 박사학위 소지자와 해당 외국어 사용국가의 학·석·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연수 경험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 ⑤ 교원의 보수 수준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임용자격·임용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데 이 경우 제주대학교의 계약제임용방법을 준용할 수 있고 보수수준도 대학교원에 준하도록 한다.
- ⑥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봉급 이외에 주거시설 임대, 가족생활비 보조, 일정기간 근무 시 해외연수 기회부여, 연구비지원, 대학학자금보조, 안식년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부가적 혜택을 제공한다.
- ⑦ 학교운영의 전문성과 대외적 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 분야 저명인사나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가운데 국제교육에 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을 교장으로 초빙하거나, 미국 등 영어권 국가의 교육 분야 저명인사를 명예교장으로 초빙한다.
- ⑧ 국제고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준 이상으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제고의 자율적인 운영은 최대한 보장하되 장기적으로는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sation), ECIS(European 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등 교육관련 국제인증기구의 인증 여부에 따라 자율과 지원의 범위를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
- ⑨ 제주도는 입학생의 장학금 지급, 기숙사 비용 지원, 국제학생 교류사업, 외국 유학 등을 위하여 별도의 재원을 마련한다. 특히 국제고 졸업생이 외국 대학의 관련학과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조성·지원할 필요가 있다.
- ⑩ 용인외고의 경우처럼 국제 계열 학생들은 입학 때부터 해외대학으로의 진학을 준비하며, 이들 해외 진학반의 경우 150여개의 해외대학이 대상이다. 그리고 3+4 체제를 갖추어 제주대학교를 원하는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우선 진학을 보장해준다.
- ⑪ 기본적으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이기는 하지만 사범대학만이 아니라 국제이해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국제화 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ization), 비교교육(comparative education), 세계교육(global education), 국제연구(international studies), 지역연구(area studies), 외국어 연구(foreign language studies), 교육 및 문화 교류(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 등 국제교육(international education)과 관련된 제주대학교 전체의 연구 성과를 학교 현장에 실제 실습,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나아가 관련 교육의 교생실습도 외국어로 해볼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원칙과 제안들이 가능할 것이다. 국제고등학교가 설치될 수 있다면 그러한 원칙과 제안들을 가다듬는 일은 차라리 행복한 고민이 될 것이다.

VI. 끝으로

제주대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고 있는 작금의 제주대 사대부고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자는 제주대 사대부고를 특수목적형 자율학교인 사대부설 국제고등학교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제주대 사대부고를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만들어보자는 것이며 더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제화된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제주대학교의 역량을 최대한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고등학교 체제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국제화된 감각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며, 국제화된 인력을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제주도에 별도의 공영형 자율학교로써 제주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독자적으로 설립하기 보다는 관학협력형 시스템에 의해 제주대학교의 역량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특수목적형 자율학교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국제교육 경쟁력을 과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보자는 것이 필자 논리의 핵심이다.

참 고 문 헌

- 강태중 외(1999),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관한 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철(2003), 특수목적고등학교 체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중섭 외(2002), 국제고등학교 설립, 운영방안 연구, 교육부
- 서울대학교(2005),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 이종태 외(1997), 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교육개혁 과정 고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이종태(2001), 자율학교 운영모델 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제주도(200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령집
- 제주도교육청(2005), 2005학년도 일반계고등학교 신입생 지원현황
- 조석희(2003),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실태 및 진단,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실태 및 진단에 관한 세미나」 발표원고
- 최영균 외(1992), 국제고등학교 설립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00), 「21세기 교육발전을 위한 국제교육협력의 새 패러다임」, 국제교육협력 담당자 세미나 자료집.
-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외국어고등학교(2005), 학교소개서
- 한라일보(2005.8.1), 김진표 교육부총리“제주에 공영형 국제고 설립 적극 검토”
- 한유경(2002),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의 재검토 : 쟁점과 개선방안, 「인천교육의 발전방향 세미나」 발표원고
- DfEE(1997), Excellence in Schools, London : Stationery Office
- International School Service(1999), The Directory of Overseas School
- Postlethwaite, T. & Husen, T. (eds.),(1985),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 Research and Studies, New York : Pergamon Press.